

세계 최고 포장전시회 규모 갖춰

참관객 편의시설, 안내요원배치 인상적

김영순 / 한국포장기계협회 상근부회장

세계적 명성의 전시회 PACK EXPO 98이 미국 시카고의 맥코믹플레이스에서 알차고 수준있게 개최되었다. 이 전시회는 2년주기의 세계적 PACK SHOW로써 3년주기의 독일 인터팩과 포장기자재 전문전시회로써는 쌍벽을 이루는 매우 큰 포장전시회로 96년 개최이후 98년 11월 8일부터 11월 12일까지 5일간 열렸으며, 그 명성에 걸맞게 미국을 위시한 구라파, 일본, 동남아 전세계 모든 포장기자재 회사들이 자기들의 기술과 노하우를 뽐내며 세계시장과 특히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여념이 없었던 전시회로 질과 양면에서 세계수준이었다.

특히 국제 식품가공전을 겸하여 개최됨으로써 세계 포장인의 관심을 더욱 집중시킨 포장전시회로 평가된다.

PACK EXPO/IEFP 98의 주최자인 PMMI (Packaging Machinery Manufacturers Institute) 의 Show Committee의 회장인 Dennis P. Mograth씨는 이번 시카고팩에 약 55,000명의 참관인이 세계 각국에서 모여들 것으로 보고 이는 96년에 비해 약 5,000명 늘어난 수라고 밝혔다.

규모면에 있어서는 총 1,595개 회사가 출품하였고 전시면적은 NET 1,119,884ft²로 그 어느 포장기자재전시회 보다 가장 큰 전시회라 자랑하고 있었으며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올해 처

음으로 시카고 시내 주요 호텔로부터 맥코믹전 시장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각국의 참관객들로부터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전시장의 면적이 매우 크고 북관, 남관, 동관으로 이루어진 홀과 홀사이의 연결통로 등이 매우 복잡하게 이루어 졌으나 요소요소에 배치된 친절한 안내원의 활약으로 이러한 불편을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였으며, 특히 컴퓨터 단말기를 많은 곳에 설치하여 출품회사의 정보를 입력하면 바로 화면에 전시부스 위치가 안내되며 프린터를 이용, Print out하여 휴대할 수 있도록 계획된 최첨단 컴퓨터 네트워크를 활용한 잘 짜여진 전시회였다.

뿐만 아니라 모든 입장객에게 Magnet Bedge를 패용토록 하여 명함을 줄 필요없이 서로 정보를 교환토록 함으로써 참관인의 참관시간을 단축할수 있도록 편리함을 더했다.

전시품목으로는 Packaging components, Packaging Containers, Packaging Machinery, Packaging Machinery Components, Packaging Materials 등 포장관련 전분야에 걸쳐 1,595개사가 각기 제품과 신개발품을 전시하여 세계의 포장 기계와 관련기자재를 한 곳에서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좋은 전시회로 생각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포장 관련 재료에

서부터 간단한 Wrapping M/C, Straping M/C 을 위시하여 고속 Filling M/C, Capping M/C, Seamming M/C, Lolreller, Wrap Around care Pacher에 이르기까지 전 포장기계 분야와 각종 Conveyer, Palleting M/C 등 모든 관련기계가 다량으로 전시되어 많은 자료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전시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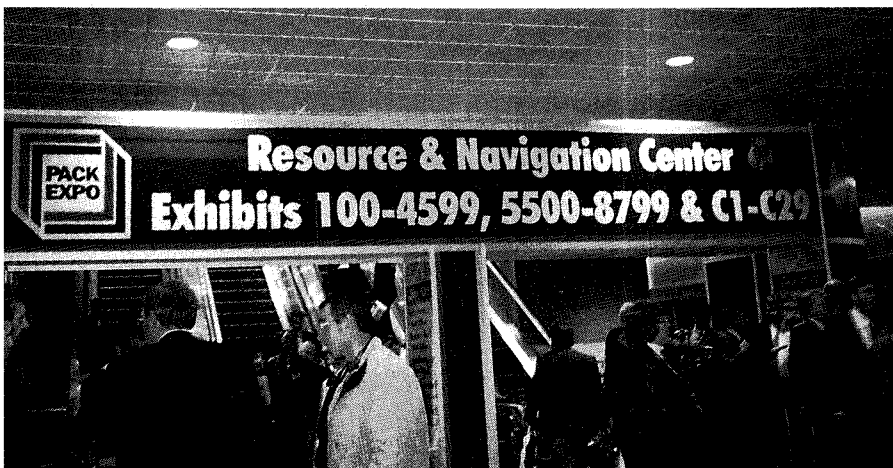
특히 IEFPP 98을 겸하여 전시함으로 참관자들에게 Food Process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동시에 얻을 수 있도록 계획되었음은 매우 좋은 계획으로 평가하고 싶다.

지난 96년 Pack EXPO만 하더라도 미국내의 전시회를 면치 못할 정도로 미주 지역 위주의 회사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American Pack EXPO란 Nick name을 면치 못하였으나 금번 Chicago Pack EXPO는 미국은 물론 독일, 블란서, 이태리, 스페인, 노르웨이, 영국 등 전 유럽국가들이 대거 참여하였으며 일본, 중국, 대만, 인도 등 동남아 지역의 국가들까지 참가하여 명실상부한 세계적 포장기자재 전시회로 손색이 없었다.

그러나 다소 아쉬웠던 점은 우리나라의 참여

였다. 한국의 참여로서는 (주)흥아기연, 동서기계(주), 동원기계, (주)산호기계, 정일산업 등이 미국 현지 대리점을 통하여 OEM 자격으로 Pack EXPO 전시회에 출품하여 매우 아쉬운 느낌을 주었으나, 실제 세계시장에서의 한국기계는 품질과 가격면에서 전혀 손색이 없음을 실감하였으며, 방문객의 많은 관심과 현지 계약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우리 기계도 세계시장에서 능히 경쟁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되었다. 앞으로는 관심있는 회사들의 세계시장을 겨냥한 전시회의 참여가 요망되었으며, 특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느꼈다.

전시회의 규모가 규모니만큼 피곤한 관람이었다. 만 이들을 정신없이 전시장을 다녀도 부족할 정도로 방대한 전시회였기에 충분한 자료와 정보의 입수로 전시회 참관이 요구됨을 다시한번 느끼면서 본 Pack EXPO는 그 전시내용의 양과 질 모든 면과 조직적인 관리체계 등이 매우 훌륭하여 3년 주기의 독일의 INTER PACK과 더불어 쌍벽을 이룰 수 있는 매우 훌륭한 전시회로 평가하고 싶다. □



◀ 시카고팩 98이 열린 전시장 내부